



보도자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문삼섭 042-481-5039 사무관 김종홍 042-481-5042
	2015년 12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10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 2016년 예산 - 2016년도 특허청 예산 5,253억원 편성 -

2016년도 특허청 예산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25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특허청 예산(순계기준) : ('15) 5,235억 → ('16) 5,253억 원 (증 0.3%)

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해외 지재권 보호,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15) 765억 → ('16) 806억 원 (증 5.4%) >

심사·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대비 5.4% 증액된 80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심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 상표조사분석 : ('15) 37억 → ('16) 45억 원 (증 22.3%)

* 디자인조사분석 : ('15) 22억 → ('16) 25억 원 (증 13.4%)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 특허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로 재분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 특허문헌 CPC 재분류 : ('15) 8억 → ('16) 35억 원 (증 333.3%)

*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 특허문헌을 26만개의 코드로 세분화하여 특허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증가(※ IPC는 7만개 코드)

□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해외 지재권 보호 : ('15) 134억 → ('16) 170억 원 (증 26.9%) >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260개→345개 기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100개→160개 기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 ('15) 68억 → ('16) 90억 원 (증 32.6%)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 ('15) 12억 → ('16) 21억 원 (증 67.7%)

또한,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을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 재산센터(IP-DESK)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다.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현황(6개국 11개소) :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 베트남, 미국(LA, 뉴욕), 독일, 일본

□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 제고

< R&D 효율성 제고 : ('15) 352억 → ('16) 388억 원 (증 10.4%) >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0.4% 증액된 38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R&D 성과가 우수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R&D 결과물의 특허 설계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사업 22억 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활용특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공공연구가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전략을 컨설팅해주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4억 원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주도할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도 전년대비 31.0% 확대하였다.

* IP-R&D 전략지원 : ('15) 124억 → ('16) 163억 원 (증 31.0%)

□ 기타

< 특허거래전문관 지원 확대 :('15) 6.3억 → ('16) 11.9억 원 (증 88.8%) >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특허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거래를 중개하는 특허거래전문관을 대폭 증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특허거래전문관 : ('15) 9 → ('16) 17명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 확대 :('15) 10억 → ('16) 15억 원 (증 50.0%) >

대학·공공연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품단위로 그룹화하고, 기업의 제품개발 수요에 맞추어 함께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50.0% 확대 편성하였다.

* 제품단위 기술이전 지원과제 : ('15) 10 → ('16) 20개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15) 24억 → ('16) 30억 원 (증 25.0%) >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해 대학이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채용하고, 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을 3개교 추가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25.0% 증액하였다.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 ('15) 12 → ('16) 15개교

최동규 특허청장은 "2016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특허청 핵심 추진사업을 위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